

- 신년사(年頭所感) -

학회원 개개인의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한 해로

일반사단법인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쿠가 히로토(도시샤대학교)

평화, 자유, 평등, 존엄, 인권, 행복

사회복지학이 그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소중히 여겨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2년만큼 이 말들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했던 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에도 인류가 국가 간 갈등을 멈추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얻지 못했음을 실감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빼앗기는 상황에 가슴이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의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2023년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이란 사람과 사회의 복지를 사상적,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하는 학문이며, 서두에서 언급했던 가치관에 기반한 연대와 행동의 학문이라고 새삼 생각해 봅니다. 비단 전쟁이 계속되는 국외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로 눈을 돌려도 이러한 실천의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점점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와 생활문제가 겹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격차와 빈곤, 차별과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실업 등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예를 들어 SNS에서 볼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폭언이 끊이지 않는 등 사람들이 여유와 관용,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가는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느낍니다.

사람과 사회의 행복을 바라는 사회복지학이란, 다양한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사회성과 삶의 풍요로움을 지탱하는 사회의 실현과 유지에 기여하는 학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한되었던 사람들의 직접 대면을 통한 교류와 대화를 되찾고, 사람들의 여유와 관용의 회복에 기여하는 학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지역과 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는 학문인 동시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는 학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 간에 벽을 쌓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포용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 내고 발신할 수 있는 학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학문'을 둘러싼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학술회의 개혁안과 이에 대한 학술계의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총리가 회원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일본학술회의를 비롯한 많은 학·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에 대해서도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그 존재 의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학술 회의를 비롯한 많은 학·협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학회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스스로도 사회복지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학은 지속적으로 또는 새롭게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에 개최된 추계학술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개최(온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활기를 띤 행사장에, 반가움과 기쁨을 느꼈던 이틀이었습니다. 심포지엄과 자유연구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많은 논의들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동안 회원들 간의 교류,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진 잡담에서도, 많은 학문적 자극을 얻고 풍성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학회의 다양한 노력과 기획 속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장점은 잘 활용하되,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의 장과 논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되찾아가고자 합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는 1954년 5월 9일 오사카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고, 같은 날 제1회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70회라는 기념비적인 대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선조들이 쌓아온 역사와 그 지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와 사회문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더욱 결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을 꺼낸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말을 스스로 되새기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올 한 해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에도 본 학회의 각 사업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한·중 3개국 학술교류 보고

부회장/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카네코 코이치 (토요대학교)

일본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와 '한국-중국-일본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각서' 를 체결하고, 각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각 학회의 연례 학술대회 심포지엄에 서로를 초청하는 것과 회원들에게 자유 연구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고에서는 2022년도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의 활동을 일본, 한국, 중국, 그 외로 나눠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제70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기간(2022년 10월 15일)에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이 '사회복지 연구·교육에서의 다문화 공생~코로나 시국에서의 유학생의 경험과 교육·지원의 현장으로부터~'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자유연구발표 신청자는 한국에서 구두발표 2건, 포스터발표 3건, 중국에서 구두발표 2건, 포스터발표 2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학회 사무국과 연계하여 입국 절차에 필요한 초청장(招聘狀), 접수필증(受付済書) 발급 등 번잡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발표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발표자들의 발표가 성사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발표자의 경우 포스터 발표가 1건만 성사되었고, 나머지 3건의 발표는 철회 또는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이 점은 본 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간사국이었던 한국은 '각국의 사회복지 개념과 범위: 역사적 변천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변화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2022년 10월 28일에 한중일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쿠가 히로토 회장, 사카구치 하루히코 회원(전 본위원회 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2명의 자유연구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2023년도는 일본이 간사국이 되어 제71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 무사시노대학(무사시노 캠퍼스)에서 일한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2022년 12월 27일, 동아시아 포럼(샤먼대학)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참석한 자유연구 발표자는 1명으로, 중국 측의 초청을 받아 본 위원회 위원장인 카네코가 발표했습니다.

그 외, 해외의 연구 동향(해당 지역의 학회 정보 등을 포함)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 유학생, 연구자로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학회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6월 29일-7월 2일에 개최된 국제 회의 'The People's Global Summit' 에서 Virag Viktor 회원(본 위원회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2022년 9월에 게재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년도 추기공동학술대회에서의 자유연구 발표정보 보고

나가노대학교
카타야마 유미코

기업에서의 장애인의 합리적 배려에 관한 한일 양국의 차이점

"엄마, 세계는 전쟁 중이니까 위험해."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세계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은 일본과 가까운 곳이야" 라고 설명하며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학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의 심사를 받아, 2022년 10월 28일(금)-29일(토)에 '기업의 합리적 배려 등 실태조사-나가노현 조쇼권역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업장 설문조사의 자유기술 분석을 통해-'(카타야마 유미코·나카오 후미카·몬시타 유코·토미타 후미코·사사키 아야코·오자와 아츠시) (과학연구비보조금 2IK13478)를 주제로, NPO법인 디센트워크 라보(Decent Work Labo)의 나카오 대표와 함께 자유연구발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나가노현 조쇼권역 장애인자립지원협의회 취업지원부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업장 조사(총 배포수 152곳 중 101곳 회수, 회수율 66.45%)의 합리적 배려에 관한 자유응답형 에피소드를 KHCoder3를 이용해 분석한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는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본에서는 2013년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성립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기업의 합리적 배려가 노력의무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 실사례가 적고, 무엇이 합리적 배려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의 합리적 배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한 한국에서는 어떤 합리적 배려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일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기업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하는 장애인의 노동조합은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먼저 법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움직이면서 알려나가는 방식인데, 아직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으로서 '합리적 배려'라는 단어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강하고, 발표 다음 날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을 보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일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학회 참가를 위해 번역을 해주신 윤일희 교수님(카나자와대학교), 하네야마 신스케 특임연구원(국립암연구소), 통역을 맡아주신 후나야 히로오 선임연구원 (디센트 워크

라보), 모리타 아키미교수님(동양토요대학교 명예교수), 당일 통역을 맡아주신 김영광 대표님(TongTong 공동작업소), 그리고 한국 한국사회복지학회 대회 개최 관계자 및 일본사회복지학회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 기간 동안 머물렀던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년도 추기공동학술대회에서의 자유연구 발표보고

도시샤대학교대학원
이동진

2022년 10월 28일(금)과 29일(토) 이틀간,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가 '한국 사회복지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다 : 지식의 성찰과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한국 강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13군데 학술단체와 14군데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 학술대회였습니다.

대회장인 한국 강남대학교는 한국 최초로 사회사업학과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으로, 한국 최초의 '4년제 독립형 사회복지대학 교육'을 실시한 한국 사회복지의 선구지로 평가받는 대학입니다. 또한, 도시샤대학교의 시마다 케이치로 교수님에게 가르침과 지도를 받은 김덕순교수님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설립한 멤버로, 강남대학교는 일본사회복지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한국-중국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사회복지학회의 발표자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자유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부적절한 보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육과 학대에 관한 일본의 선행연구는 보호자에 의한 가정 내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의 발생요인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한국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 연구와 관련된 지적과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예방-대응 시스템, 일본과 한국의 보육제도의 차이점, 어린이가정청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구 교류와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또한 2부 '산학협력세션' 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아동분야의 보육 및 육아 서비스 및 노인돌봄을 의미)'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의 세션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등이 신설되는 등 한국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당사자성, 즉 '아동은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가'라는 발언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 현재의 교육과 보호자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과 실천에 대해, 아이들이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인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2년 '동아시아포럼' 자유연구 발표보고

쿠루메대학교대학원
許 東升 (Dongsheng, Xu)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남아있는 2022년 12월 27일,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와 아모이(廈門)대학교 공공행정학원이 주최하는 2022년도 '동아시아 사회복지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 : 사회복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에서 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이사장인 평화민(彭華民) 교수님, 본 학회 부회장인 카네코 코이치 교수님을 포함한 5명의 발표자(중국 2명, 일본 2명, 한국 1명)가 다양한 관점에서 귀중한 연구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 사이에서 저만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어 긴장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치매 문제를 안고 있는 일중 양국에서 향후 전문적인 치매 케어의 보급 및 치매 환자와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복지학과 학생들의 치매 환자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 및 지식의 일중 비교'라는 주제로 일본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30분간 일본어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 논평자 高和榮 교수님(아모이대학)으로부터 제 발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치매 노인과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격려의 코멘트를 받아 앞으로의 연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젊고 미숙한 연구자인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모국에서의 발표 경험이 적은 저에게 이런 귀중한 발표 기회를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 및 주최 측인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일중 학술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준비와 조정에 힘써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의 타카무네(高宗)씨를 비롯한 사무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 회 CS—NET 살롱 보고'

—우선은 수평적 관계를—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강민호(도시샤대학)



지난 2022년11월 26일(토)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1회 CS-NET 살롱(이하 본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구비 조성 : 획득의 고뇌와 궁리'를 주제로 한 본회에서는 'CS-NET(Creative Support Network, 초기 경력 연구자 네트워크)'와 '살롱(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부담 없이 교류하는 장)'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약 45명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 연구지원위원회 CS-NET 살롱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호다 마키 위원으로부터 '살롱 기획 소개'가 있는 후, 1부에서는 3명의 발표자가 각각 20분씩 화제를 제공했습니다. 화제 제공은 첫 번째 기획인만큼 참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구지원위원회 위원인 강민호(도시샤대학 조교수), 코야스 유미코(니혼복지대학 박사과정 겸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호다 마키(호쇼대학 부교수)가 맡았습니다.

먼저 강위원이 '단독연구와 공동연구 : 연구분담자, 연구협력자도 시야에 넣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단독 연구로 연구비를 획득하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구 분담자-연구 협력자로서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 교류회(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 자기 어필(자신이 어떤 연구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코야스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과 연결고리'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이해해 주는 상사와의 상담과 협조를 얻어 연구 대상자의 동창회보에 설문지를 동봉할 수 있었던 점,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신청하고 회신된 금액만 부담할 수 있었던 점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초기경력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코야스 위원의 경험담은 초기경력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중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다 위원은 '연구비 획득까지의 경험'을 주제로 박사전기과정, 박사후기과정, 취업 후라는 세 시기의 연구비 획득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좌절과 궁리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자 번호가 없는 박사전기 · 후기과정의 대학원생이나 일부 연구원 등은, 공익법인 등 민간단체의 연구조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의 연구비 획득에 있어서 연구조성의 목적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연구비를 획득하게 된 성공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제공된 화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인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정보교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의 진행 하에 이루어진 정보교환회에서는, 연구조성을 둘러싼 경험담 등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조성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불합격했다', '연구조성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과학기술연구비나 연구조성 신청서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분야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원한다', '논문 작성, 투고, 심사 관련 세미나를 열어주면 좋겠다', '육아와 일, 연구자의 워라밸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연구윤리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등 CS-NET을 포함한 학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CS-NET 살롱에서는 그 취지에 걸맞게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초기경력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이야기한 '주변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한 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몇 년 전 한 세미나에서 대학원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께 '대학원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교수님은 "대학원생들 간의 토론을 중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던 한 초기 경력 연구자가 '학교에 따라서는 연구실 내부 뿐만 아니라 대학원 자체에 대학원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대학원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럽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를 포함한 많은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즉 '수평적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러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CS-NET 살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1회 CS-NET 살롱에 참석해주신 분들, 특히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진행자 역할을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翻訳

孫 宜燮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朴 東民 (立教大学大学院コミュニティ福祉学研究科博士課程後期課程)

번역

손의섭 (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박동민 (릿쿄대학대학원 커뮤니티복지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